

##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아침묵상

아침묵상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방송됩니다. 목요일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3. 수요성경공부

수요성경공부는 앞으로 2주에 한번씩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성경공부가 7시 30분에 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4. 2024 사무총회

2월 25일(주일) 2023년도 제정보고와 감사보고를 위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난 주 (1/28)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990.00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형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3:16-22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2월 11일	2월 18일
강민선	윤하나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13) 무엇을 하리이까

본문 : 눅3:7-15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부친상을 다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라고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꼼꼼히 생각해 보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죽은 송장이 되어서 관속에 누워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장례를 치워주는 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산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산개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1초 1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은 존재,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칫집에 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언덕의 이름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죽음의 언덕 골고다를 적심으로 구원이 이뤄짐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골고다 언덕에 불과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데오빌이라는 고위직 관료에게 당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체를 말하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좇아 살아가지만 이제부터 내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과 반대대는 길을 걸으신 분이시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믿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박차고 나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은 하나 하나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 세리들, 군인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회개할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가 일어난다면 돌이킴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으며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했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돌이키는 것이고 그 돌이킴은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